

# 경찰관련 전공대학생들의 진로선택에 관한 영향요인분석\*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Career Choice of Students  
Majoring in Police Science

박 광 현\*\*

## 차 례

- |            |             |
|------------|-------------|
| I. 서 론     | IV. 결과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시사점 |
| III. 조사 설계 |             |

## • 국 문 요 약 •

본 논문은 경찰관련 전공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직업결정영향 요인, 직업준비 행동, 직업결정요인 그리고 행동의도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대학 2년제 및 4년제 대학의 경찰관련학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2017년 4월 1일에서 4월 20일까지 약 20여 일간 설문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총 25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질의에 대한 응답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여 최종 229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1.0과 AMOS 21.0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응답자의 특성을 판단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적인 실증조사의 통계적인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및 변수들을 요인으로 규합해서 상관관계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이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는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등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직업결정영향요인은 수정행동이론모형을 적용하여 인지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직업결정 행동의도 등 총 4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진로준비행동은 선행연구를

\* 본 연구결과는 2017학년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WU17-052)

\*\*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바탕으로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 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직업결정요인은 경찰의 직업적 전망과 비전, 자유로운 근무시간, 급여, 보람 성취감, 이미지, 직업의 직·간접경험, 미디어의 영향, 주변사람들의 의견, 다양한 혜택 등으로 정의하였다. 행동의도 요인은 향후 경찰관련

직업을 결정할 의도와 향후 경찰관련 직업을 결정할 계획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경찰관련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기초자료 및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직업결정영향요인, 직업준비행동, 직업결정요인, 행동의도

## I. 서론

인생에서 중대한 선택의 시기 중 하나는 진로와 직업을 결정해야 하는 대학생의 시기이다. 직업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개인은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sup>1)</sup> 이러한 대학생 시기의 직업결정은 심리적·경제적 안녕감, 자존감, 자아실현, 사회적 소속감, 사회적 경제질서 등과 관련하여 일생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충족시킴으로써 개성신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직업의 자유에 대해 개인의 자유권 및 인격과 개성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시에 시장경제질서의 불가결의 요소라고 판시한 바 있다.<sup>2)</sup>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직업결정을 청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하여 고심하는 한편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분명하게 혹은 암시적인 영향

1) 김병희, “대학신입생의 직업의식 및 결정요인 탐색”, 학생생활연구, 제9권, 학생생활연구소, 2003, 69-82쪽.

2) 헌법재판소 1997. 4. 24. 95헌마273, 공보 제21호.

을 받으면서 직업결정의 압력을 느낀다고 한다.<sup>3)</sup>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쟁률이 계속해서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찰관련학과도 이와 더불어 활성화되고 있다. 2017년 자료에 의하면, 모집단위의 통폐합 등으로 변화가 있지만 전국의 경찰관련학과는 대략 4년제 70개 대학, 2년제 30개 대학<sup>4)</sup> 등 100여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찰공무원을 진로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관련 학과의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차이점은 교과과정(교양·전공선택·전공심화)의 구성, 향후 대학원 진학가부 및 경찰공무원 시험 중 경찰행정 특채 전형조건<sup>5)</sup>이 2년제는 졸업이고 4년제는 45학점이수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찰관 1인당 국민 수는 2015년 기준 456명으로 미국 427

- 
- 3) 박성미, “대학생을 위한 멘토링 기능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06, 49-57쪽.
- 4) 강동대학, 강원도립대(해양경찰), 경남정보대, 경민대, 경북과학대, 경북전문대, 계명문화대, 김포대학, 대구과학대, 대덕대, 대전과학기술대, 동강대, 동의과학대, 백석문화대, 부산경상대, 부산과학기술대학, 부산정보대, 상지영서대, 서해대학, 선린대학, 세경대학, 수성대, 신안산대, 오산대, 전남도립대, 조선이공대, 창신대, 충남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한국영상대 등 30여개 대학.
- 5)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4항 2호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만, 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명, 영국 421명, 프랑스 322명, 독일 305명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sup>6)</sup>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찰공무원이 1만 4623명이 증가했다. 현 정부도 앞으로 전체 11만 6770명의 경찰공무원에 2만 명을 추가하는 증원 계획을 세웠으며 2017년 8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선별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므로 안전사회를 추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경찰공무원의 선호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강화와 직업존중감 및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직업선택에 대한 신념과 계획이 직업선택에 선결문제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관련학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경찰의 태도에 대한 인식이 대학생의 경찰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sup>7)</sup>, 경찰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시험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sup>8)</sup>, 경찰학(형사사법학) 전공학생들의 가치체계에 대한 한·미간 비교연구,<sup>9)</sup> 경찰대학생의 역량모델 개발,<sup>10)</sup> 대학생의 특성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sup>11)</sup> 문제해결능력을 반영한 직업탐

6) 경찰청, 2015 경찰통계연보, 2016.

7) 윤종성·김영오, “치안선호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찰학연구, 제13권 4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3, 31쪽.

8) 서석윤·김공·김영남·김평수, “경찰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시험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제1권 제1호,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 2012, 45쪽.

9) 윤우석, “경찰학(형사사법학) 전공학생들의 가치체계에 대한 한·미 간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09, 36쪽.

10) 민경석·문경환·황문규, “경찰대학생의 역량모델”, 경찰학연구, 제17권 제2호, 경찰대학교, 2017, 57쪽.

11) 오은주,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

구 영역의 시험의 성격, 평가목표, 행동영역 개선 연구<sup>12)</sup> 등이 있다. 하지만 경찰관련학과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예비 직업인이나 현재 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업인에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경찰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직업결정영향 요인, 직업준비행동, 직업결정요인 그리고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찰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기초자료 및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는 Taylor & Betz(1983)<sup>13)</sup>가 제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고 구성요소는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미래에 대한 진로계획, 문제해결 등 총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자기평가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

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청소년학회, 2014, 31쪽.

12) 김진구·박영수·김경훈·박덕수, “문제해결능력을 반영한 직업탐구 영역의 시험의 성격, 평가목표, 행동영역 개선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직업교육학회, 2012, 43쪽.

13) Taylor, K. M., & Betz, N. E.,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2, No. 1(February, 1983), pp. 63-81.

에 적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정의된다. 둘째, 정보수집은 직무나 과업, 고용 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정의 된다. 셋째, 목표설정은 자신을 위한 현실적인 직업 과업을 후회 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넷째, 미래 진로에 대한 계획은 진로목표에 대해서 논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은 진로결정과 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경찰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시험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sup>14)</sup>에서 다루고 있다. Sheeran 등은 자기효능감을 자기 능력의 판단 또는 기대에 관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자아존중감을 자기가치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았다.<sup>15)</sup> Bandura는 자기효능감과 비교하여 자아존중감이 능력에 대한 신념과 자신에 대한 호불호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sup>16)</sup>

## 2. 직업결정요인

Osipow & Barack(1976)는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환경적, 그리고 경험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sup>17)</sup>, 임옥진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11개의 요인을 제시하였

14) 서석윤·김공·김영남·김평수, 앞의 글, 2012, 47-50쪽.

15) Sheeran, P., "Intention-behavior relations: A conceptual and empirical review",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2, No. 1(2002), pp. 1-36.

16) Bandura, *Social learning theory*(NJ: Prentice-Hall, 1977), pp. 1-13.

17) Osipow, S. H., Carney, G. C., & Barack, A.,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9, No. 2(October, 1976), p. 9.

다.18) 김경식·이현철은 진로결정 요인으로 개인, 가정, 학교, 직업 요인을 제시하였고,19) 김정숙·황여정은 진로결정관련 변인으로 개인특성, 가정배경, 경제의식, 진로지도를 제시하였다.20) 김영호는 치안선호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제시하였다.21) 그리고 박정주·정주영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학생의 개인변인, 대학의 특성, 대학교육 이외의 경험 등을 제시하였는데22) 중·고등학생에 비해 대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직업준비행동

직업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을 말하며, 진로결정 이후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23) 또한, 직업준비행동에 있어 개인이 직업을 얻기 위

- 
- 18) 임옥진, “대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학논총, 제33권 제2호, 대경교육학회, 2012, 19쪽.
- 19) 김경식·이현철,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학교진로교육의 효과: 한국교육고용패널(KEEP)과 한국청소년패널(KYPS) 분석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제60권 제4호, 경북대 중등교육연구소, 2012, 1080쪽.
- 20) 김정숙·황여정, “일반계 고등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2쪽.
- 21) 윤중성·김영오, “치안선호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찰학연구, 제13권 제4호, 2013, 135-165쪽.
- 22) 박정주·정주영, “고차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한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관한 종단 분석”,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327-343쪽.
- 23) 김봉환·김계현,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단 및 심리치료, 제9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 1997, 311- 333쪽.

해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과 실제 취업의 관문을 위한 단계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일련의 모든 행동을 일컫는다.<sup>24)</sup> 따라서 직업준비행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포괄적인 활동으로써,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이러한 결정에 대한 실천의 구체적 행위는 다음과 같다.<sup>25)</sup> 첫째, 정보수집활동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둘째, 도구 구비활동은 목표한 직업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며, 셋째, 목표달성활동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 4. 직업결정영향요인

직업결정영향요인의 설명변수는 크게 4가지 직업결정의 인지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직업결정행동의도로 구성된다. 첫째, 직업결정의 인지적 태도는 자신의 의사에 대한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개념으로서, 방향성 이외에도 태도의 강약으로 인해 행동할 가능성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sup>26)</sup> 둘째, 주관적 규범은 주변인들의 의견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되며<sup>27)</sup>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이 자신이

24) 이예진·이기학, “진로동기수준에 따른 군집 유형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2010, 267쪽.

25) 김봉환·김계현, 앞의 글, 311- 333쪽.

26) 김명자, “계획적 행동이론에 의한 실버타운 잠재고객의 구매의도 결정요인”,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15쪽.

27) 최자영·김경자,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행동 분석”, 소비자학연구, 제14권 제4호, 2003, 89-90쪽.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sup>28)</sup> 특히,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영향이나 사회적 압력으로 표현되는데<sup>29)</sup> 계획행동이론의 설명변수 중 행동에 대한 인지적 태도나 지각된 행동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동의도에 대한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0)</sup> 셋째, 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동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신념과 이에 대한 강도의 지각에 의해 결정된다.<sup>31)</sup>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Bandura의 지각된 자기효능감(perceived self-efficacy)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인지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sup>32)</sup> 넷째, 직업결정 행동의도는 직업결정 행동 전에 선행되는 단계이며,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미한다.<sup>33)</sup>

28) 오종철,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디지털 콘텐츠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 -감각추구 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대한경영학회, 2007, 477-504쪽.

29) Yoh, E.. “Consumer adoption of the Internet for apparel shopping”, *Ph. D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1999), pp 10-21.

30) 차동필, “폭음행위 이해”, 한국언론학보, 제49권 제3호, 한국언론학회, 2005, 346-372쪽; Rivis, A., & Sheeran, P., “Social influences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Evidence for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prototypes and young people’s exercise behaviour”, *Psychology and Health*, Vol. 18, No. 5(2003), pp. 567-583.

31) Ajzen, I., & Driver, B. L..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al to leisure cho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24, No. 3(1992), pp. 207-224.

32) 차동필, 위의 글, 346-372쪽; 최성범 · 정우진, “생활스포츠 참가자의 친환경 행동 예측을 위한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한국스포츠학회지, 제9권 제1호, 한국스포츠학회, 2011, 153-165쪽; 손영곤 · 이병관,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사회인지적 행동 모델의 유용성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6호, 2012, 127-161쪽.

33) Ajzen, I..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 5. 행동의도

확장된 계획행동이론(TPB)을 활용한 행동의도 연구에서<sup>34)</sup> 계획행동 이론은 특정 행동의도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등의 3개 요인으로부터 예측함으로<sup>35)</sup> 외부영향력을 측정하여 행동의도의 예측<sup>36)</sup>과 실제행동의 예측<sup>37)</sup> 있어서 적절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 행동 이론은 낮은 설명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실증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행동의 원인은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특정 행동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sup>38)</sup>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행동을 유발케 하는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행동의 원인을 밝혀 부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32, No. 4(2002), pp. 1-20.

34) 조원섭, “확장된 계획행동이론(TPB)을 활용한 커피전문점 행동의도 연구”, 관광연구, 제28권 제6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14, 161-179쪽.

35) Casaló, L. V., Flavián, C., & Guinalú, M., “Determinants of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firm-hosted online travel communities and effects on consumer behavioral intentions”, *Tourism management*, Vol. 31, No. 6(2010), pp. 898-911.

36) Lam, T., & Hsu, C. H. C., “Theory of planned behavior: Potential travelers from China”,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Research*, Vol. 28, No. 4(2004), pp. 463-482.

37) Dawkins, C. E., & Frass, J. W., “Decision of union workers to participate in employee involvement: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Employee Relations*, Vol. 27, No. 5(2005), pp. 511-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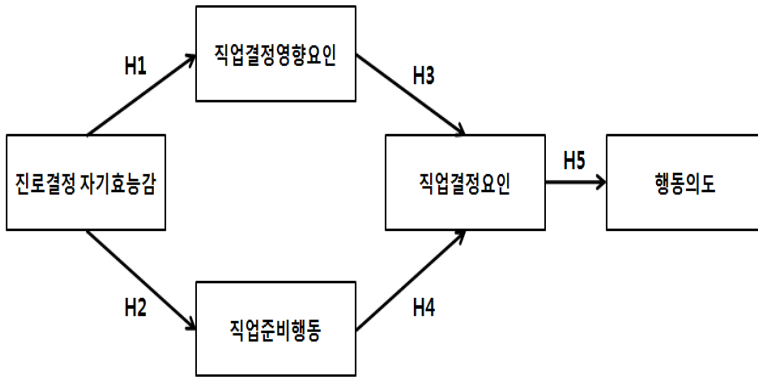
38) 전형규 · 강인호 · 조원섭, “관광지의 특성,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 만족, 행동의도 간의 관계연구”, 관광연구, 제25권 제3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10, 237-258쪽.

이와 같이 진로선택에 관한 영향요인을 토대로 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상관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Ⅲ. 조사설계

#### 1. 연구의 모형 및 가설

##### 1) 연구의 모형



〈그림 1〉 연구모형(Research Model)

## 2) 연구의 가설

- H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결정영향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직업결정영향요인은 직업결정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직업준비행동은 직업결정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직업결정요인은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표본의 추출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직업결정요인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직업결정영향요인과 직업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대학 2년제 및 4년제 대학 경찰관련학과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2017년 4월 1일에서 4월 20일까지 약 20여 일간 설문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총 25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질의에 대한 응답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여 최종 229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1.0과 AMO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이용하여 응답자의 특성을 판단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적인 실증조사의 통계적인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및 변수들을 요인으로 규합하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해서 상관관계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up>39)</sup>을 이용하였다.

39) 김계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2007.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는 Betz & Vuyten의 연구를 토대로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등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자기평가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정의를 내리며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sup>40)</sup> 정보수집은 경찰에 대한 직무전반과 고용에 대한 흐름의 정보파악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를 내려 5문항, 목표설정은 후회 없이 자신의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정의하며, 5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진로계획은 진로목표에 대한 논리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여 5문항, 문제해결은 진로결정 및 수행과정에 동반되는 문제해결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고 총 5문항을 설문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경찰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시험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바리스타전공 대학생들의 직업준중감이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결정영향요인 및 직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했다.<sup>41)</sup>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결정영향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0) Betz, N. E. & Vuyten, K. K.,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46, No. 2(December, 1997), pp. 179-189.

41) 최영준, "공정 리더십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정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56-64쪽.

## 2) 직업결정영향요인

직업결정영향요인은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수정한 수정행동이론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인지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직업결정 행동의도 등 총 4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sup>42)</sup>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태도를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감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jzen, Al-Gahtani & Hubona,<sup>43)</sup> 김미경·노정희<sup>44)</sup>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찰에 대한 직업결정의 인지적 태도를 자신의 결정에 대한 방향성의 강약의 행동 결과로 정의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가족, 친구 주변타인 등의 의견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하며, 김미경·노정희(2006), Sparks & Pan(2009),<sup>45)</sup> Lam & Hsu(2006),<sup>46)</sup> Baker, Al-Gahtani & Hubona(2007), 박서아(2015)<sup>47)</sup> 등의 연구를 토대

42)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Vol. 50, No. 2(1991), pp. 179-211.

43) Baker, E.W., Al - Gahtani, S. S., & Hubona, G.S., "The effects of gender and age on new technology implement athenian developing country: Tes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Vol. 20, No. 4(2007), pp. 352-375.

44) 김미경·노정희, "겨울스포츠 참가의도 예측 계획행동이론의 확대 적용", *관광연구*, 제21권 제2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06, 155-172쪽.

45) Sparks, B., & Pan, G. W., "Chinese outbound tourists: Understanding their attitudes, constraints and use of information sources", *Tourism Management*, Vol. 30, No. 4(August, 2009), pp. 483-494.

46) Lam, T., & Hsu, C. H. C., "Theory of planned behavior: Potential travelers from China",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Research*, Vol. 28, No. 4(November, 2004), pp. 463-482.

47) 박서아, "호텔관광산업의 직업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

로 총 4문항을 구성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계획적 행동을 실행하는데 성패에 대한 개인의 인지정도로 정의하며, 김미경·노정희(2006), 이태희·윤설민·김홍렬(2009),<sup>48)</sup> Sparks& Pan(2009)의 연구를 토대로 2문항을 설문에 사용하였다. 직업결정 행동의도는 경찰직업에 대한 직업결정의 의지 정도로 정의하며, Ajzen (2002), 김미경·노정희(2006), 이태희·윤설민·김홍렬(2009)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문항을 구성하였다.

직업결정영향연구의 영향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직업결정영향요인이 직업결정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직업결정영향요인과 직업결정요인의 영향관계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직업결정영향요인은 직업결정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직업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 이명숙(2003)의 선행연구<sup>49)</sup>를 바탕으로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목표달성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정보수집활동은 경찰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으로 정의내리며 5문항, 도구 구비활동은 경찰직업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는 행동으로 정의를 내려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목표달성활동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정의하며 총

학위논문, 2014, 2-15쪽.

48) 이태희·윤설민·김홍렬, “이해관계자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관광요소에 대한 중요도 및 선호도 평가 연구: 태안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학술논문집, 제7권, 한국관광학회, 2009, 149-161쪽.

49) 이명숙, “자기효능감이 초등학생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2003, 34-52쪽.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업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업준비행동은 직업결정요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sup>50)</sup> 그러므로 직업준비행동과 직업결정요인의 영향관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직업준비행동은 직업결정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직업결정요인

Dermody, Young & Taylor는 직업결정요인은 크게 내재적인 요인, 외재적인 요인, 무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sup>51)</sup>, 내적인 요인은 긍정적인 감정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여되는 요인들이며, 외재적인 요인은 외부적인 요구나 보상과 같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며, 무요인은 개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최영수의 연구에서는<sup>52)</sup> 직업결정요인 항목을 일하는 보람, 타인이나 회사에서 인정받음, 수입, 능력발휘, 장래 안정, 노동시간, 스트레스나 피로 적음, 생활의 규칙성, 통근시간 및 거리, 휴가일수, 전근 등 11개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직업결정요인을 경찰의 직업적 전망과 비전, 자유로운 근무시간, 급여, 보람 성취감, 이미지, 직업의

---

50) 임옥진, 앞의 글, 19-49쪽.

51) Dermody, M., Young, M. & Taylor, S. L., "Identifying job motivation factors of staurant servers: insight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recruitment and retention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Administration*, Vol. 5, No. 3(March, 2004), pp. 1-14.

52) 최영수, "호텔 식음료부문 중사원의 직무동기부여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여행학연구, 제21권, 한국여행학회, 2004, 223-239쪽.

직·간접경험, 미디어의 영향, 주변사람들의 의견, 다양한 혜택 등으로 정의 내리며 총 17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박진우·최연철·유광의의 항공여객의 차후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관한 연구에서 직업결정요인은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sup>53)</sup> 그러므로 직업결정요인과 행동의도의 영향관계에 대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직업결정요인은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많은 연구에서 주요 변수역할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 및 신념으로 정의되는데 이것은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의지이며, 미래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급자와의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행동의도는 합리적 행동이론을 활용한 연구들에서 주관적 규범의 행동의도의 설명력이 낮게 보고되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 행동이론을 보완할 추가적 변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행동의도를 평가함에 있어 개인의 태도 및 주관적 규범용인 외에도 고려해야할 외부요인들이 존재한다. 이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행동의도 요인을 향후 경찰관련 직업을 결정할 의도와 향후 경찰관련 직업을 결정할 계획으로 구분하여 총 2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53) 박진우·최연철·유광의, “항공여객의 차후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제24권 제2호, 대학교통학회, 2006, 43-51쪽.

## IV. 결과 분석

### 1. 표본의 특성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N=229)

항 목	구 분	빈도	구성비	항목	구 분	빈 도	구성비
성별	남 성	145	63.3	전공	경찰관련학과	229	100.0
	여 성	84	36.7		그 외 전공	0	-
연령	20세미만	23	10.0	교육 수준	2년제 대학 재학 중	19	8.3
	20세 이상~30세 미만	206	90.0		4년제 대학 재학 중	210	91.7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45명(63.3%), 84명(36.7%)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세미만이 23명(10.0%), 20세 이상 30세 미만 응답자가 206명(90.0%)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응답자 모두 경찰관련학과(경찰행정학, 경찰법학, 경찰경호학 등)였으며, 교육수준은 2년제 대학 재학 중인 응답자가 19명(8.3%),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응답자가 210명(91.7%)로 나타났다.

### 2.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구성개념의 측정항목에 대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응답자의 결과를 토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결정 영향요인, 직업준비행동, 직업결정요인, 행동의도 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과 신뢰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 <표 3>, <표 4>, <표 5>와 같다.

<표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변수	요인명 <sup>a</sup>	측정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공통성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정보 수집 ( $\alpha = .954$ )	1. 관련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 등에서 찾을 수 있다	4.01	.853	.839	.857	4,995 (19,982)
		2. 향후 10년간의 직업에 대한 고용 경향을 알 수 있다	3.79	.848	.892	.887	
		3.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낼 수 있다.	3.87	.838	.899	.913	
		4. 관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90	.873	.898	.909	
	목표설정 ( $\alpha = .957$ )	5.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잘 할 자신이 있다.	3.95	.944	.755	.801	4,359 (17,435)
		6. 선택 가능한 전공 목록들에서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4.04	.887	.868	.838	
		7.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 목록들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4.06	.851	.814	.846	
		8. 내가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4.10	.840	.814	.877	
		9. 진로결정 후 잘한 것인지만 못한 것만에게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4.02	.883	.824	.882	
		10. 나는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4.11	.864	.908	.916	
	진로계획 ( $\alpha = .952$ )	11.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3.90	1.030	.892	.877	4,279 (17,116)
		12.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요구되는 어떤 교육과정이 요구되는지 알 수 있다	3.83	.996	.870	.865	
		13.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다	3.70	1.063	.818	.816	
		14. 나는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3.79	.997	.887	.891	
		15. 취업 면접과 관련된 절차들을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다	3.82	1.017	.898	.879	
	문제해결 ( $\alpha = .959$ )	16. 선택한 전공과 관련해 학업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3.74	.909	.859	.876	4,198 (16,794)
		17.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81	.876	.903	.892	
		18. 처음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3.70	.936	.799	.867	
		19. 대학원이나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3.83	.851	.871	.904	
		20. 처음 선택한 진로나 분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77	.928	.893	.913	
	자기평가 ( $\alpha = .950$ )	21.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3.90	.820	.788	.836	3,557 (14,226)
		22.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3.99	.761	.847	.861	
		23. 나는 직업선택과 관련된 가치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3.99	.835	.858	.866	
		24.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은 감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어려운지를 구분할 수 있다.	3.95	.815	.863	.865	
		25.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4.03	.860	.832	.854	
총 분산설명력 = 85.553%, KMO측도 = .925, Bartlett검정 = 6616,205 (Sig.=.000)							

$\alpha$  . 신뢰도 측정 : Cronbach's  $\alpha$  값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수는 총 5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을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로 명명하였다. 이들의 누적분산 설명력은 85.553%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KMO값은 0.925, Bartlett 구형성 검정값은 유의수준 1%이내에서  $\chi^2=6616.205$ (Sig.=.000)로 나타나 분석을 계속 진행함에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적 일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Cronbach's  $\alpha$ 값은 각 요인별로 0.950~0.962로 나타나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

〈표 3〉 진로결정 영향요인 및 직업준비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변수	요인명*	측정 항목	평균	표준편차	공통성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설명력)
직업결정 영향 요인	인지적 태도 ( $\alpha = .952$ )	1. 나에게 좋다고 생각한다.	4.23	.744	.899	.823	3,479 (34,791)
		2.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4.25	.752	.912	.825	
		3. 나에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4.32	.767	.879	.877	
		4.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4.22	.809	.835	.802	
	주관적 규범 ( $\alpha = .961$ )	5. 주변사람들은 찬성해 줄 것이다.	4.52	.673	.899	.856	3,428 (34,285)
		6. 주변사람들은 지지해 줄 것이다.	4.52	.679	.952	.854	
		7. 주변사람들은 이해해 줄 것이다.	4.60	.631	.835	.784	
		8. 주변사람들은 동의해 줄 것이다.	4.47	.716	.912	.839	
	자각된행동통제 ( $\alpha = .958$ )	9. 더 많은 언어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4.33	.734	.960	.883	2,134 (21,336)
		10. 더 많은 경험이 요구될 것이다.	4.35	.744	.959	.873	
<b>총 분산설명력 = 90,412%, KMO측도 = .812, Bartlett검정 = 3237,8845 (Sig.=.000)</b>							
직업준비 행동	진로탐색 ( $\alpha = .936$ )	1. 친구, 부모님과 적성 및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3.46	1,053	.887	.910	4,486 (29,909)
		2. 교수님과 적성 및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3.36	1,089	.873	.881	
		9. 진로 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3.53	1,002	-	-	
		10. 취업상담센터 또는 카운슬링과 리더십센터 등의 상담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3.19	1,107	.835	.861	
		11.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3.40	1,078	.769	.852	
	소극행동 ( $\alpha = .931$ )	3. 진로 관련 교육기관이나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보았다	4.08	.742	.683	.814	4,410 (29,399)
		4. 진로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4.11	.798	.767	.848	
		5. 진로 관련 TV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4.04	.834	.691	.816	
		6. 진로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4.11	.764	.696	.822	
		7. 진로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4.15	.830	.823	.885	
		8. 진로 관련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4.18	.837	.812	.892	
		12. 진로에 필요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3.49	.990	.888	.904	
	적극행동 ( $\alpha = .968$ )	13. 이미 구입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그 준비를 하고 있다	3.49	.958	.929	.927	3,390 (22,598)
		14.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3.27	1,006	.803	.845	
		15.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 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3.48	.976	.928	.931	
		16.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3.48	.967	.903	.901	
<b>총 분산설명력 = 81,907%, KMO측도 = .905, Bartlett검정 = 3573,729 (Sig.=.000)</b>							

직업결정 영향요인 변수는 총 3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을 인지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로 구분하였다. 직업준비행동 변수는 총 3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어 각각 진로탐색, 소극행동, 적극행동으로 명명하였다. 다만, 직업준비행동 변수의 9번 항목은 요인적재량이 0.5이하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들의 누적분산설명력은 각각 90.412%, 81.907%로 나타났다. KMO값은 각각 0.812, 0.905였으며, Bartlett구형성 검정값은 유의수준 1%이내에서  $\chi^2=3237.8845$  (Sig.=.000),  $\chi^2=3573.729$  (Sig.=.000)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은 요인 모두 0.931~0.968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 직업결정요인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변수	요인명 <sup>a</sup>	측정항목	평균	표준편차	공통성	요인적재량	고유값 (분산설명력)
직업결정요인	주관적 가치 ( $\alpha=.888$ )	1. 적성에 맞다	4.26	.838	.724	.835	4.717 (29.481)
		8.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다	4.34	.821	.772	.848	
		9.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4.26	.801	.800	.863	
		10. 자기발전 가능성과 자기개발 기회가 많다	4.37	.836	.710	.788	
	직업환경 ( $\alpha=.932$ )	2. 근무환경이 좋다	3.52	.916	-	-	3.954 (24.715)
		3. 근무시간이 자유롭다	2.90	1.086	.856	.916	
		4. 타직종에 비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2.89	1.144	.823	.893	
		5. 급여의 증가폭이 크다	2.94	1.041	.690	.875	
		6. 보너스 지급기준이 좋다	3.05	1.027	.815	.854	
		7. 업무관련 부수적 이익이 많다	2.97	1.131	.771	.813	
		이미지 ( $\alpha=.920$ )	11.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4.38	.761	.716	
	12.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가 쉽다		4.34	.851	.632	.759	
	13. 직업의 이미지가 좋다		4.28	.821	.670	.812	
	14. 매력있고 멋있어 보인다		4.42	.772	.751	.788	
	15. 미디어에서 멋있게 보인다		4.45	.727	.688	.813	
	16.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다		4.38	.821	.683	.808	
	17. 전문적이다		4.59	.736	.655	.791	
<b>총 분산설명력 = 73.475%, KMO측도 = .901, Bartlett검정 = 2618,740 (Sig.=.000)</b>							

〈표 5〉 행동의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변수	요인명 $\alpha$	측 정 항 목	평균	표 준 편 차	공통성	요 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행동 의도	행동의도 ( $\alpha = .936$ )	1. 향후 경찰관련 직업을 결정할 의도가 있다.	4.46	.716	.940	.969	1.880 (93.985)
		2. 향후 경찰관련 직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4.51	.747	.940	.969	
총 분산설명력 = 93.985%, KMO측도 = .500, Bartlett검정 = 336.744 (Sig.=.000)							

직업결정요인 변수는 총 3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어, 각각 주관적 가치, 직업환경, 이미지로 명명하였으며, 행동의도 변수는 1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직업결정요인 변수의 2번 항목은 요인적재량 값이 0.5이하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고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의 누적분산설명력은 각각 73.475% (KMO측도 = .901, Bartlett검정 = 2618.740 (Sig. = .000)), 93.985% (KMO측도 = .500, Bartlett검정 = 336.744 (Sig. = .000))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은 요인 모두 0.888~0.936으로 나타나 분석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 3. 연구가설 검증

가설 검증을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이용하였다. 1차적으로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상관관계분석결과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	인지적태도	주관적규범
정보수집	—						
목표설정	.000	—					
진로계획	.000	.000	—				
문제해결	.000	.000	.000	—			
자기평가	.000	.000	.000	.000	—		
인지적태도	.095	.047	.030	.112	.080	—	
주관적규범	.388**	.049	.141*	.192**	.135*	.000	—
지각된 행동통제	.121	.070	.008	.051	.109	.000	.000
진로탐색	.491**	.064	.195**	.267**	.234**	.164*	.364**
소극행동	.091	.001	.137	.098	.190**	.115	.070
적극행동	.133*	.297**	.056	.118	.039	.136*	.021
주관적가치	.151*	.055	.011	.109	.237**	.307**	.135*
직업환경	.204**	.258**	.237**	.008	.076	.050	.025
이미지	.297**	.022	.004	.096	.023	.252**	.540**
행동의도	.375**	.040	.000	.265**	.075	.451**	.510**

	지각된 행동통제	진로탐색	소극행동	적극행동	주관적가치	직업환경	이미지	행동의도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								
인지적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행동통제	—							
진로탐색	.140*	—						
소극행동	.104	.000	—					
적극행동	.167*	.000	.000	—				
주관적가치	.347**	.226**	.032	.060	—			
직업환경	.076	.194**	.190**	.106	.000	—		
이미지	.162*	.238**	.087	.079	.000	.000	—	
행동의도	.334**	.302**	.037	.261**	.369**	.004	.513**	—

\*\* p<.01, \* p<.05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구성개념간의 관계여부는 파악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는 알 수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의한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중요적합도 지수는  $\chi^2=4788.702$  ( $df=2093$ , Prob.=.000)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 지표만을 보면 연구모형이 기각된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chi^2$ 는 표본 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지수들을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 RMR=.051, GFI=.852, AGFI=.839, NFI=.865, CFI=.851, RMSEA=.057 등으로 나타나 모형은 대체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가설검증결과

구 분		표준화 계 수	S.E.	C.R.	검정 결과
가설1	자기효능감 → 직업결정영향요인				부분 채택
1-1	정보수집 → 인지적태도	.114	.055	1.903*	
1-2	정보수집 → 주관적규범	.108	.052	1.684*	
1-3	정보수집 → 지각된 행동통제	.163	.057	2.574***	
1-4	목표설정 → 인지적태도	.414	.055	6.630***	
1-5	목표설정 → 주관적규범	.273	.050	4.188***	
1-6	목표설정 → 지각된 행동통제	.258	.055	3.979***	
1-7	진로계획 → 인지적태도	.008	.043	.131	
1-8	진로계획 → 주관적규범	-.045	.040	-.700	
1-9	진로계획 → 지각된 행동통제	-.011	.043	-.183	
1-10	문제해결 → 인지적태도	.153	.050	1.055	
1-11	문제해결 → 주관적규범	-.101	.046	-2.570***	
1-12	문제해결 → 지각된 행동통제	-.165	.051	-1.590	
1-13	자기평가 → 인지적태도	.252	.061	4.141***	
1-14	자기평가 → 주관적규범	.181	.057	2.803***	
1-15	자기평가 → 지각된 행동통제	.172	.062	2.697***	
가설2	자기효능감 → 직업준비행동				부분 채택
2-1	정보수집 → 진로탐색	.064	.074	.982	
2-2	정보수집 → 소극행동	.203	.052	3.496***	
2-3	정보수집 → 적극행동	.240	.076	3.626***	
2-4	목표설정 → 진로탐색	.199	.072	3.031***	

구 분		표준화 계 수	S.E.	C.R.	검정 결과	
2-5	목표설정 → 소극행동	.518	.054	8.164***		
2-6	목표설정 → 적극행동	.149	.072	2.273**		
2-7	진로계획 → 진로탐색	-.123	.058	-1.896*		
2-8	진로계획 → 소극행동	.073	.040	1.287		
2-9	진로계획 → 적극행동	.069	.059	1.055		
2-10	문제해결 → 진로탐색	.283	.069	4.270***		
2-11	문제해결 → 소극행동	-.033	.046	-.581		
2-12	문제해결 → 적극행동	-.007	.068	-.106		
2-13	자기평가 → 진로탐색	.123	.081	1.883*		
2-14	자기평가 → 소극행동	.253	.057	4.293***		
2-15	자기평가 → 적극행동	.131	.082	1.995**		
가설3	직업결정영향요인 → 직업결정요인					부분 채택
3-1	인지적태도 → 주관적가치	.694	.062	9.880***		
3-2	인지적태도 → 직업환경	.034	.097	.481		
3-3	인지적태도 → 이미지	.014	.057	.217		
3-4	주관적규범 → 주관적가치	.015	.055	.271		
3-5	주관적규범 → 직업환경	-.132	.107	-1.939*		
3-6	주관적규범 → 이미지	.265	.065	4.081***		
3-7	지각된 행동통제 → 주관적가치	.046	.049	.867		
3-8	지각된 행동통제 → 직업환경	.089	.095	1.318		
3-9	지각된 행동통제 → 이미지	.354	.059	5.365***		
가설4	직업준비행동 → 직업결정요인				부분 채택	
4-1	진로탐색 → 주관적가치	.037	.038	.691		
4-2	진로탐색 → 직업환경	.075	.074	1.112		
4-3	진로탐색 → 이미지	.012	.044	-.188		
4-4	소극행동 → 주관적가치	.030	.053	.509		
4-5	소극행동 → 직업환경	.214	.105	2.857***		
4-6	소극행동 → 이미지	.158	.062	2.277**		
4-7	적극행동 → 주관적가치	.077	.038	1.433		
4-8	적극행동 → 직업환경	.137	.073	2.039**		
4-9	적극행동 → 이미지	.015	.043	.249		
가설5	직업결정요인 → 행동의도				채택	
5-1	주관적가치 → 행동의도	.570	.071	8.455***		
5-2	직업환경 → 행동의도	-.160	.038	-2.904***		
5-3	이미지 → 행동의도	.324	.064	5.408***		

Chi-square = 4788.702 (df=2093, Prob.=.000)  
 RMR=.051, GFI=.852, AGFI=.839, NFI=.865, CFI=.851, RMSEA=.057

\*\*\* p<.01, \*\* p<.05, \* p<.1

가설검증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직업결정영향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H1>은 세부요인 중 정보수집이 인지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각각 표준화계수=.114, .108, .163, C.R.=1.903, 1.684, 2.574로 나타나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목표설정요인 또한 인지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자기평가 요인도 직업결정영향요인의 세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H 1>은 부분채택 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직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H 2>는 <표 6>의 결과와 같이 정보수집→소극행동, 정보수집→적극행동, 목표설정→진로탐색, 목표설정→소득행동, 목표설정→적극행동, 진로계획→진로탐색, 문제해결→진로탐색, 자기평가→진로탐색, 자기평가→소극행동, 자기평가→적극행동 등의 요인 간 관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 채택되었다. 직업결정영향요인이 직업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H 3>은 인지적태도와 주관적 가치, 주관적 규범과 직업환경 및 이미지, 지각된 행동통제와 이미지 요인 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 채택되었다. 직업준비행동이 직업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H 4>는 소극행동과 직업환경 및 이미지, 적극행동과 직업환경 요인 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부분 채택되었다.

직업결정요인과 행동의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H 5>는 직업결정요인의 세부요인 모두 행동의도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다만, 직업환경 요인과 행동의도 요인 간 관계는 음(-)으로 나타나 경찰의 직업환경이 경찰관련 직업을 선택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경찰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졸업과 동시에 사회진출에 요구되는 요인들 간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이 재학 중 갖추어야 할 필요역량과 실질적인 행동을 파악하여 사회진출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직업결정영향요인과 직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직업결정영향요인과 직업준비행동이 직업결정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결정요인은 경찰관련학과 학생들의 행동의도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었으며, 직업결정영향 요인은 인지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등 3개의 요인이 도출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H 1<가설 1>의 분석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세부요인 중 정보수집과 목표설정, 자기평가 요인은 직업결정영향요인의 세 요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해결 요인과 주관적 규범 사이의 효과가 증명되었으나 부(-)의 방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결정영향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부분 채택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에 대한 이해와 희망 직업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지식은 경찰관력 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

는데 매우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결정한 직업군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은 경찰관련학과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자신이 희망 직업군으로 전이가 가능하도록 고용동향 파악 및 필요역량 강화계획 등의 단계별 전략이 요구된다. 더불어 희망 직업군에 관련된 실무경험자나 선배들의 강연을 통해 실질적인 단계별 전략을 구상하여, 희망 직업군에 대한 장·단점 및 미래 성장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H 2<가설 2>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5개의 하위요인과 직업준비행동의 진로탐색, 소극행동, 적극행동 등의 3개의 요인과의 분석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표설정과 자기평가요인은 직업준비행동의 모든 요인과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수집의 경우 소극행동과 적극행동요인과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였고, 진로계획과 문제해결 요인은 직업준비행동의 진로탐색의 요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직업결정영향요인과 직업결정요인의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H 3<가설 3>의 분석결과는 인지적 태도와 주관적 가치는 직업결정요인의 하위 요인인 주관적 규범, 직업환경, 이미지 등 3개의 요인 모두에게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직업결정 영향요인의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은 직업결정요인의 이미지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 가설 3은 부분 채택 되었다. 가설 2와 가설 3의 결과를 통해, 경찰관련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설정에 대한 군은 의지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대한 파악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진 이후에 직업을 준비하는 행동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이를 위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주변과 충분히 소통이 선행되어야 하며, 진로가 결정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보탐색 및 학과 수업과 비교과 수업 및 개인학습의 실천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넷째, H 4(가설 4)의 직업준비행동과 직업결정요인 간의 분석결과로는 직업준비행동의 소극행동 요인이 직업결정요인의 직업환경과 이미지 요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으나, 적극행동은 직업환경 요인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부분 채택되었다. 따라서 직업준비행동의 단계에서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경찰관련학과 학생들이 예상하는 희망직종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매력에 그쳐 진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희망 직종군에 대한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이상과 현실을 인지시키며, 자신의 직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결정요인은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찰관련학과 학생들은 경찰관련 직업이 자기능력을 발휘하며, 주위에서 인정받고 자신의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사명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고용불안 상황에서 헌법상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 등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경찰관련 직업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립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주위의 지지와 경찰관련 직업에 대한 희망적인 요소를 파악하여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격려와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2년제 및 4년제 경찰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학생들의 대학 재학 중 미래 취업에 용이하게 적용 가능한 요인과 영향관계를 도출하여 개인적인 역량 강화 및 진로계획과 더불어 실질적인 취업전략의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연구의 대상을 수도권과 지방대학 2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의 경찰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학생들의 개인역량과 구체적인 진로계획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의 지역범위와 대학별 학생들의 수준 편차를 고려하여, 표본의 대상을 넓혀 비교연구를 통한 세부대상별 취업 전략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학과 특성상 이미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전문적인 학습으로 자신의 진로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학과와 전공과는 무관한 취업으로 연계되는 학과의 통계 자료를 통해, 학과별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직업군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구체적인 대학생활의 계획이 명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논문 접수 : 2017. 8. 20, 심사 개시 : 2017. 8. 23, 게재 확정 : 2017. 9. 22〉

## 참 고 문 헌

### I. 국내문헌

#### 1. 단행본

경찰청, 2015 경찰통계연보, 2016.

김계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2007.

#### 2. 논문

김경식 · 이현철,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학교진로교육의 효과: 한국교육고용패널(KEEP)과 한국청소년패널 (KYPS) 분석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제60권 제4호, 경북대 중등교육연구소, 2012.

김명자, “계획적 행동이론에 의한 실버타운 잠재고객의 구매의도 결정요인”,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김미경 · 노정희, “겨울스포츠 참가의도 예측 계획행동이론의 확대 적용”, 관광 연구, 제21권 제2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06.

김병희, “대학신입생의 직업의식 및 결정요인 탐색”, 학생생활연구, 제9권, 학생생활연구소, 2003.

김봉환 · 김계현,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9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 1997.

김정숙 · 황여정, “일반계 고등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 김진구 · 박영수 · 김경훈 · 박덕수, “문제해결능력을 반영한 직업탐구 영역의 시험의 성격, 평가목표, 행동영역 개선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직업교육학회, 2012.
- 민경석 · 문경환 · 황문규, “경찰대학생의 역량모델”, 경찰학연구, 제17권 제2호, 경찰대학교, 2017.
- 박서아, “호텔관광산업의 직업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박성미, “대학생을 위한 멘토링 기능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06.
- 박정주 · 정주영, “고차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한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관한 종단 분석”,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박진우 · 최연철 · 유광의, “항공여객의 차후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제24권 제2호, 대한교통학회, 2006.
- 서석윤 · 김공 · 김영남 · 김평수, “경찰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시험스트레스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제1권 제1호,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 2012.
- 손영곤 · 이병관,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사회인지적 행동 모델의 유용성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6호, 2012.
- 오은주,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청소년학회, 2014.
- 오종철,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디지털 콘텐츠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 -감각추구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

- 대회 논문집, 대한경영학회, 2007.
- 윤우석, “경찰학(형사사법학) 전공학생들의 가치체계에 대한 한·미 간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09.
- 윤종성·김영오, “치안선호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찰학연구, 제13권 4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3.
- 이명숙, “자기효능감이 초등학생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2003..
- 이예진·이기학, “진로동기수준에 따른 군집 유형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2010.
- 이태희·윤설민·김홍렬, “이해관계자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관광요소에 대한 중요도 및 선호도 평가 연구: 태안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학술논문집, 제7권, 한국관광학회, 2009.
- 임옥진, “대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학논총, 제33권 제2호, 대경교육학회, 2012.
- 전형규·강인호·조원섭, “관광지의 특성,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 만족, 행동 의도 간의 관계연구”, 관광연구, 제25권 제3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10.
- 조원섭, “확장된 계획행동이론(TPB)을 활용한 커피전문점 행동의도 연구”, 관광연구, 제28권 제6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14.
- 차동필, “폭음행위 이해”, 한국언론학보, 제49권 제3호, 한국언론학회, 2005.
- 최성범·정우진, “생활스포츠 참가자의 친환경행동 예측을 위한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한국스포츠학회지, 제9권 제1호, 한국스포츠학회, 2011.

- 최영수, “호텔 식음료부문 종사원의 직무동기부여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여행학연구, 제21권, 한국여행학회, 2004.
- 최영준, “긍정 리더십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정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최자영·김경자,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행동  
분석”, 소비자학연구, 제14권 제4호, 2003.

## II. 외국문헌

### 1. 단행본

Bandura, Social learning theory(NJ: Prentice-Hall, 1977).

### 2. 논문

Ajzen, I., & Driver, B. L..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al to leisure cho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24, No. 3(1992).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Organizational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Vol. 50,  
No. 2(1991).

Ajzen,I..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32, No. 4(2002).

Baker, E.W., Al - Gahtani, S. S., & Hubona, G.S., “The effects of  
gender and age on new technology implement athenian  
developing country: Tes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Information Technology& People, Vol. 20, No. 4(2007).

- Betz, N. E. & Vuyten, K. K.,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46, No. 2(December, 1997).
- Casaló, L. V., Flavián, C., & Guinalíu, M., "Determinants of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firm-hosted online travel communities and effects on consumer behavioral intentions", *Tourism management*, Vol. 31, No. 6(2010).
- Dawkins, C. E., & Frass, J. W., "Decision of union workers to participate in employee involvement: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Employee Relations*, Vol. 27, No. 5(2005).
- Dermody, M., Young, M. & Taylor, S. L., "Identifying job motivation factors of staurant servers: insight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recruitment and retention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Administration*, Vol. 5, No. 3(March, 2004).
- Lam, T., & Hsu, C. H. C., "Theory of planned behavior: Potential travelers from China",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Research*, Vol. 28, No. 4(November, 2004).
- Osipow, S. H., Carney, G. C., & Barack, A.,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9, No. 2(October, 1976).
- Rivis, A., & Sheeran, P., "Social influences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Evidence for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prototypes and young people's exercise behaviour", *Psychology and Health*, Vol. 18, No. 5(2003).
- Sheeran, P., "Intention-behavior relations: A conceptual and empirical

- review”,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2, No. 1(2002).
- Sparks, B., & Pan, G. W., “Chinese outbound tourists: Understanding their attitudes, constraints and use of information sources”, Tourism Management, Vol. 30, No. 4(August, 2009).
- Taylor, K. M., & Betz, N. E.,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2, No. 1(February 1983).
- Yoh, E., “Consumer adoption of the Internet for apparel shopping”, Ph. D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1999).

< ABSTRACT >

## The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Career Choice of Students Majoring in Police Science

Park, Kwang-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vocational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Also,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n self-effectiveness of a course decis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college students related to police major study. For this, the students related to police major study in local and Seoul Metropolitan Area college & university were selected as the respondents at April 2017. And a sampling was practiced as a random sample. A question investigation was used in a entry method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urthermore a total of 229 person(90.9%) was used as final analysis data. The collected data were employed in a statistics program of SPSS 21.0, AMOS 21.0 And used in a way of Pearson's inte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conclusion was as follows. Firstl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Students Majoring in Police Science affected beneficially statistically Influencing Factors of Career Dec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econdly Influencing Factors of Career Dec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ffected Career Decision Factors. Thirdly, Career Decision Factors affected Behavioral Intention.

- ◆ Key Words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fluencing Factors of Career Dec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Career Decision Factors, Behavioral Intention

